

박정훈 목사
와일리한인감리교회 주일예배
창세기 13:5-7
2026 년 9 월 13 일 오전 11 시

돈, 의미 그리고 사명

< 주여 도우소서 >

곰돌이 가족이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린 창문으로 파리 한 마리가 날아 들어왔습니다. 아빠 곰은 파리를 잡기 위해 파리채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휘두름에 식탁 위의 음식과 그릇이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휘두름에는 엄마 곰이 맞았습니다. 세 번째에는 아기 곰이 나뒹굴었습니다. 아빠 곰은 화가 나서 외쳤습니다. “하늘이 두 쪽 나더라도 저 파리는 꼭 잡고 말겠다!” 결국 아빠 곰은 온 방을 헤집고 다닌 끝에 파리를 쫓아냈습니다. 목표는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중요한 저녁 식탁과 가족의 평안은 모두 망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표를 이루었지만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삶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가정을 잃어버리고, 성공을 위해 건강과 관계를 희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무엇을 얻었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세 가지 중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3M 입니다.

첫째는 Money(돈)입니다. 돈은 중요합니다. 돈이 없으면 가족을 돌보고 이웃을 섬기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는 ‘돈의 사용’이란 설교에서 ‘할 수 있는 한 많이 벌이라’, ‘할 수 있는 한 많이 저축하라’, ‘할 수 있는 한 많이 나누어주라’는 세 가지 권면을 하였습니다. 정당하게 돈을 벌고, 돈을 아껴 저축하며, 돈을 선한 일에 사용하라는 교훈입니다. 그러나 돈이 인생의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둘째는 Meaning(의미)입니다. 사람은 돈과 소유만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내 삶이 왜 존재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할 때 진정한 의미를 발견합니다.

그러나 의미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셋째는 Mission(사명)입니다. 사명의 ‘사’는 부릴 사(使), ‘명’은 명령 명(命)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게 맡기신 일이 사명입니다. 그러나 사명이라고 해서 선교사나 목회자의 특별한 일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로서의 사명이 있고, 어머니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로서의 사명이 있고, 직장에서는 직장인으로서, 교회에서는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몫이 있습니다. 사명이란 거창한 일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두신 자리에서 내게 맡기신 몫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1. 소유가 사람보다 앞설 때

돈도 필요합니다. 삶의 의미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돈과 의미가 궁극적으로 향해야 할 곳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주신 사명은 복이 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창 12:2). 단순히 고향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복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어 사는 것이었습니다. 허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람은 조카 롯에게조차 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람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아내를 되찾고, 모든 소유를 가지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브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창 13:1-2).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변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 장 5 절은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래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창 12:5). 하란을 떠날 때 아브람의 관심은 사람이 먼저였습니다. 사래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롯이 등장하며, 그

다음에 소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애굽을 떠날 때는 순서가 달라졌습니다.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재산이 먼저 나오고 롯이 뒤로 밀려났습니다. 자식이 없었던 아브람에게 롯은 단순한 조카 이상의 소중한 가족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돌아온 뒤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두 사람 사이에 ‘소유’가 끼어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근과 결핍을 경험한 아브람은 어느 순간 재물에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람은 네게브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다시 이동하여 벧엘 근처에 이르게 됩니다.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벧엘에 이르며 벧엘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3 절). 그곳은 전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아브람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4 절). 겉으로 보면 아브람은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아브람과 롯은 함께 예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 후 그들의 삶에서는 갈등이 나타났습니다. “아브람의 가족의 목자와 롯의 가족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7 상반절).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표면적인 이유는 땅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6 절). 필요한 만큼의 소유가 있었을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소유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돈이 없어서 싸운 것이 아닙니다. 돈이 너무 많아서 싸웠습니다. 아브람과 롯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함께 예배했고,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소유를 향하기 시작하자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예배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예배하는 마음과 삶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7 하반절).

2. 재물보다 소중한 것을 선택하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람과 롯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해야 할 영적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다투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싸우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상처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복음의 문이 닫힌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면 세상은 복음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그러나 교회가 욕심과 다툼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은 복음보다 우리의 갈등을 먼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아브람과 롯이 소유 때문에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본 가나안 사람들이 과연 아브람의 하나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겠습니까? 아브람은 하나님께 부름 받은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람의 삶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할 때, 사람들은 오히려 아브람의 욕심과 다툼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람의 삶이 소유를 향하기 시작하자 아브람의 메시지는 힘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기 전에 우리의 삶을 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세상은 우리의 설교보다 우리의 삶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아브람에게 가장 큰 손실은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많은 가축과 은과 금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영향력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아야 할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생겼고, 주변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아브람이 쾰엘에서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지만, 그의 삶의 무게중심이 여전히 소유에 머물러 있는 동안 갈등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8 절에 이르면 아브람이 갑자기 달라집니다.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8 절). 7 절과 8 절 사이에 아브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브람의 생각이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어제까지 아브람에게 중요한 것은 Money,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Meaning, 의미의 가치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평화였습니다. 돈을 조금 더 가지는 것보다 롯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좋은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 가족을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이 먼저 손을 내밉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그리고 말로만 화해를 제안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았습니다.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나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9 절). 아브람이 어른입니다. 먼저 땅을 선택할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람은 그 권리를 내려놓았습니다. 평화를 위해 손해 볼 준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변화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만이 성공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을 지키는 것만이 성공도 아닙니다. 때로는 더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 내 몫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람은 이제 돈과 함께 ‘의미’를 추구하는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롯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이익을 먼저 바라보았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와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10-11 절). 롯은 눈을 들어 가장 좋은 땅을 찾았습니다. 물이 넉넉하고 목축하기에 좋은 곳, 더 많은 재산을 불릴 수 있는 곳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표현이 의미심장합니다. 그 땅은 “여호와와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고 했습니다. 아브람과 롯이 애굽에서 돌아온 지 얼마나 되었다고 롯은 다시 애굽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롯의

마음에는 아직 애굽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롯의 선택에는 한 가지 결정적인 것이 빠져 있습니다.

3. 다시 사명의 자리로

롯은 눈을 들었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눈에 좋아 보이는 곳, 돈을 벌기에 좋은 곳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12 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12 절). 처음부터 소돔 한가운데로 들어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장막을 조금씩 옮기다가 마침내 소돔까지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돈만 따라가는 인생의 위험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버리겠다고 결심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또 한 걸음 옮기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반면에 돈에 있었던 인생의 무게중심을 ‘의미’로 옮긴 아브람, 더 좋은 땅을 포기하고 평화를 선택한 아브람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사명’의 자리로 세우십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14 절). 여기서 롯과 아브람의 모습이 아주 대조적입니다. 롯도 “눈을 들어”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롯은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물이 넉넉하고 재산을 늘리기에 좋은 요단 지역을 보고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롯은 자기 욕망을 따라 눈을 들었지만,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눈을 들었습니다. 롯은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 바라보았지만, 아브람은 하나님께서 보여 주시는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15 절). 그리고 바라보기만 하지 말고 이제 일어나 그 땅을 걸으라고 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17 절). 사명은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일어나 걸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람에게는 땅도 자기 소유가 아니고, 약속을 이어갈 자식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지금 아브람에게 필요한 것은 계산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은 일어납니다.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18 절).

장막을 옮겨 헤브론의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고, 그곳에서도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람은 다시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눈에 좋은 것을 찾아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 주시는 곳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브람은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사명이란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자리에서 내게 맡기신 몫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받은 복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어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사명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사명을 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돈과 시간과 재능과 삶의 모든 것을 나만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며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일에 사용합시다. 복을 받는 것은 은혜입니다. 복이 되어 사는 것은 사명입니다. 돈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돈을 의미 있게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자리에서 내게 맡기신 몫을 충실히 감당하십시오. 돈보다 더 소중한 의미를 붙들고, 하나님께 받은 복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Soli Deo Gloria >